

전통고급주 활성화 위한 주세법 개정해야

증류주·국산 위스키 등 증가세 155% 과세...생산가 20만원짜리 세금만 31만원 좋은 재료 쓰면 세금 급증...수입 제품에 경쟁력 뒤지고 국산 주류 품질향상 저해



국내 증류산업이 낮은 규제와 세법에 발목이 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지적이 나온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를 비롯한 고급 주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급속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행 주세법이 국산 위스키와 증류 소주 등 전통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주류에 대한 세금 부과 불균형 탓에 국산 주류가 다양화와 고급화되지 못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전통주 성장 가로막는 주세법=24일 세정당국과 증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50년간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에 적용했던 과세 방식을 증가세에서 종량제로 변경했다.

증가세는 제조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으로, 종량제는 도수와 용량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방식이 증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뀌어 따라 국내 증류 시장은 급격히 변화했다. 과거 증가세 체제 아래 수입 맥주는 국산 맥주보다 저렴한 세금으로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4캔

1만원' 프로모션과 다양한 제품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그러다 종량제로 바뀌면서 국내 증류업계도 수제 맥주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면서 시장이 국산 수제맥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종량제 적용 6개월 만에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의 점유율을 추월하기도 했다. 막걸리 역시 프리미엄 막걸리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등 국내 증류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주세 과세체계 개편은 여전히 맥주와 탁주에만 머물러 있어 조선시대 고급술의 대명사였던 증류주 등 전통주와 국산 위스키 등 '고급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원재료 국산 위스키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현 주세법상 과세는 155%다. 생산가 20만원짜리 위스키에 붙는 세금만 31만원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세금 부담도 확대된다.

또 국산 증류의 경우 출고가에 포장제와 영업과 물류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돼 세금이 높게 책정되

는 것과 달리, 수입 증류는 수입할 때 신고 가격에 세금을 매겨 국산보다 유리한 구조다.

이처럼 증가세를 적용할 경우 국산 증류는 비싸고 좋은 원료를 사용해 술을 만들면 세금이 급증, 수입 증류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증류 기업들이 고품질의 증류 생산에 나서지 못하는 등 증류산업이 위축, 다양한 전통주와 국산 증류 품질향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해 4개국만 증가세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증가세는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산과 수입주류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고품질의 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말했다.

◇고품질의 국산 술 세계화 위해 증가세→종량제로=국산 술이 현 증가세 체제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맥주 및 탁주의 사례처럼 종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지고,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세율이 낮아지는 국제 원칙에 따라 단순히 양을 기준으로 하는 증가세보다 도수를 고려한 종량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증류 문화가 바뀌면서 국산 증류 소주와 위스키 등 고급 술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주세법

개편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소주와 맥주가 주를 이뤘던 술 문화가 와인과 증류식 소주, 위스키 등 고급 주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이 용량과 도수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제로 바뀌면 수입 증류와 공정하게 품질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술을 만드는 원재료를 더욱 고급화할 수 있어 제품력이 우수한 국산 증류가 시장에 확대되고,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국산 증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BTS와 '오징어게임' 등 한류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지금이 한식을 포함해 우리의 술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적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진석 현대외식연구소 이사는 "최근 술과 외식 문화가 고급 술로 빠르게 바뀌면서 우리의 전통 술인 증류식 소주 소비도 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고품질의 국산 증류 개발은 더딘 편이다"며 "증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뀌면 국내 업체들이 고품질의 국산 술을 원재료로 한 뛰어난 증류식 소주 생산에 뛰어들 환경이 조성되고, 쌀 소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세법 바꾸면 음식·식기류 산업도 발전하죠”

‘화요’ 신화 이끈 조태권 광주요그림 회장

우리나라의 대표 주종인 증류 주류는 그동안 세계화를 위한 국산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과잉생산 되고 있는 쌀의 소비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증류시장 규모는 약 1803조에 이른다. 그러나 국내시장 규모는 8조8천억원으로 세계와 비교했을 때 약 0.5%에 그칠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시장 가능성은 높는데 반해 쌀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주세법의 증가세 과세 체계에서 기인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통주 시장에 '고급 소주', '프리미엄 소주'로 '화요' 신화를 쓰고 있는 조태권 광주요그림 회장은

고급 증류주 '화요' 입소문 올해 매출 500억원대 기대 한국문화 우수성 전파할 것

"맛과 품질에서 우수한 증류식 소주가 세계 명주와 겨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수입 주류와 국산 증류 간의 세금 부과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종량제로 전환한 맥주 시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국산 맥주 점유율이 수입 맥주를 추월했을 것"이라며 "종량제로 전환되면 우리의 증류 주류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증가세 체제 하에서 증류식 소주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와 비교해 6-10배 높은 수준 탓에 내수 경쟁력이 낮다"며 "불공정한 과세 체계로 관련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는 증가세 체계를 종량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세표준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증류의 세계화는 요원하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 증류주 '화요'의 성장세는 가파르다. 지난 2005년 출시만 해도 증류식 소주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반응이 신봉치 않았다. 그러나 2011년 '화요'를 군부대에 면세주로 납품하게 되면서 맛과 품질로 호응을 받으며 점차 입소문을 탔다.

이후 2015년 매출 100억 원대를 달성했으며 올해 20-30%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9

년 증류업계 최초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했고, 2021년에는 스마트해셋 인증을 획득했다.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고급 증류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올해는 500억 여원대의 매출이 기대된다.

조 회장은 "화요의 모태는 '광주요그림'이다. 전통 도자의 맥을 잇고 대중화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했다"며 "고급도자 사업에서 식문화사업으로, 또 증류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한다는 사명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2003년 한식 레스토랑 '가온'을, 2012년에는 '비체나'를 오픈했다. 두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판이 발간된 2017년부터 한해도 거르지 않고 3스타, 1스타를 획득할 만큼 세계에 통하는 한식으로 인정받았다.

조 회장은 "주세법 등 식생활 관련 규제를 개혁할 경우 2025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며 "문화의 핵심 토대인 음식과 식기류 등 소비재 산업이 함께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태권 광주요그림 회장

현대차 '포니 쿠페 콘셉트' 48년만에 복원한다

1974년 이 디자이너와 협력

내년 봄 공개

현대자동차는 이탈리아의 전설적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협력해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이탈리아 디자인 회사인 'GFG 스타일'의 설립자 겸 대표로서, 포니와 포니 쿠페 디자인을 시작으로 포니 엑셀, 프레스토, 스텔라, 쏘나타 1, 2세대 등 다수의 현대차 초기 모델들을 디자인했다.

1999년에는 자동차 산업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전세계 자동차 저널리스트로부터 '20세기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에 선정됐으며, 2002년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현대차는 GFG 스타일과 공동으로 포니 쿠페 콘셉트를 복원하기로 하고, 내년 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가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독자생산 모델인 포니와 함께 선보인 포니 쿠페 콘셉트는 쉐기 모양의 노즈와 원형의 헤드램프, 종이접기를 연상케 하는 기하학적 선으로 전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포니 쿠페 콘셉트 모델.

세계 자동차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주지아로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등장하는 '드러리안 DMC 12'를 디자인하면서 포니 쿠페를 기반으로 완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복원 프로젝트는 포니 개발을 통해 자동차를 국가의 중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염원했던 정주영 선대회장의 수출보국 정신과 포니 쿠페를 앞세워 글로벌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했던 당시 임직원들의 열정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엽 현대차 부사장은 "오리지널 포니와 포니 쿠페 콘셉트는 세계적으로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이오닉 5'와 'N Vision 74' 등 여러 모델에 영향을 미친 특별한 작품"이라며 "주지아로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포니 쿠페 콘셉트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그리다'라는 철학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네비에서 '호남해안로드' 검색하세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영광 백수해안도로·여수~고흥 도로 등 구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 서남해안 지역의 수려한 해상경관과 연륙교, 연도교를 둘러볼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 '호남해안로드'를 네비게이션과 지도 앱 등 주요 플랫폼에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호남해안로드'는 새만금 지역부터 시작해 영광

백수해안도로,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여수~고흥 간 해상도로 등 각 지역 특색에 맞춰 16개 코스로 구성됐다.

지금까지는 한국관광공사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앱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으로 직접 접속해 다운을 받아야만 해안로드 드라이브 코스를 확인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이번에 카카오톡과 네이버, 티맵(T-map)과 협업을 통해 '호남해안로드'를 검색만 하면 서남해안 지역의 드라이브 코스를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익산국토청은 울 상반기 해안로드 지도 제작 및 안내표지판 정비까지 완료, 이번에 플랫폼 반영까지 모두 마쳐 관광객들이 서남해안 지역의 명품 해안도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직원이 24일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 마련된 '한겨울 쉼터'에서 방문객에게 나눠줄 방역 마스크와 손난로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영업점 '한겨울 쉼터' 운영

손난로·마스크 등 제공

광주은행이 올해도 광주·전남과 수도권 133개 모든 영업점에서 '한겨울 쉼터'를 운영한다.

내년 2월24일까지 이들 영업점을 찾으면 한겨울 추위를 피하고 손난로(한팩)와 방역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광주은행 한겨울 쉼터'는 송중옥 광주은행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운영되고 있다.

박진영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지역민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개방하는 광주은행 한겨울 쉼터가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민과 고객의 건강과

안전 지킴에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41.33(+23.32)
↑ 코스닥	738.22(+12.63)
↓ 금리 (국고채 3년)	3.689(-0.160)
↓ 환율 (USD)	1328.20(-23.60)